

문영숙의 꼭 알아야 할 독립운동가 최재형

<2>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 그는 누구인가?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함경도 지방의 기근과 흉수

최재형은 1860년 8월 15일, 함경북도 경원에서 최홍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경원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국경을 이룬 곳이다. 최재형의 아버지 최홍백은 가난한 소작인이었고 어머니는 재색을 겸비한 기생이었다고 전해진다.

경원은 함경북도 최북단으로 세종 때 여진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김중서를 파견하였던 회령, 부령, 종성, 온성, 경흥과 함께 6진 중에 한 곳이었다. 바다와 맞닿아 있어 연해주라 불리는 러시아 땅은 당시 시베리아 동쪽에 있는 죄수들의 유형지로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다. 그 땅은 바로 고구려와 발해의 옛땅이었다. 최재형이 태어날 무렵부터 함경도 지방에는 기근이 심했다.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에 가서 계절농사를 지었다. 계절농사는 이른 봄에 두만강을 건너가서 밭을 일궈 농사를 지어 가을이 되면 거둬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지은 식량으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다.

그러나 두만강을 건너다 국경을 지키는 관원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렸고, 관원들은 그 목을 강변에 매달아 놓고 월경을 막았다고 한다. 하지만 극심한 기근과 양반들의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강을 건너다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라는 절박함으로, 하나 돌씩 강을 건너 낚신 땅 러시아 연해주로 살길을 찾아 떠나갔다.

최재형이 아홉 살 되던 해에는 었친 데 덮친 격으로 늦은 봄부터 난데없이 흄비가 내렸다. 심심산골 골짜

기마다 층층으로 일구어 만든 손바닥 만 한 밭에도 흄비가 내려 마른 먼지만 풀썩풀썩 날렸다. 백성들은 임금을 원망했고, 임금은 하늘을 원망했다. 도처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나 모두 허사였다.

여름 내내 데일 듯 뜨겁게 내리쬘던 해가 칠석을 앞둔 어느 날,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천지가 캄캄하더니 드디어 천둥과 번개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장대비를 쏟아부었다. 딱딱하게 마른 땅에 폭포처럼 내리는 비는 홍수로 변해 물길과 가까운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까지 나서 말뚝 하던 동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굶주림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던 소작인들은 일찍이 겪어보지도 못했던 대홍수로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물길에 휩쓸려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세간마저 떠내려가서 살길이 막막했다.

남도지방에는 호열자(장티푸스)가 발생했다. 호열자는 불길처럼 번져 유명마을이 생긴다는 소문도 들렸다. 호열자가 되면 고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다가 설사와 토사를 반복하다 죽어갔다.

최재형의 가족들 두만강을 건너다

몰래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땅으로 간 사람들이 연해주 지신하라는 마을에 터를 잡고 잘 산다는 소문이 들렸다. 최재형의 아버지 최홍백도 두 아들과 늙은 부친을 모시고 두 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어느날 최홍백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도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로 가야겠다.”

두 아들이 움푹 패인 눈을 찡뻛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만약 강을 건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린대요.”

주름진 최홍백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굶어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간다. 게다가

호열자까지 돌고 있어. 병약하진 할 아버지가 더 걱정이다. 우리도 언제 길바닥에 쓰러질지 몰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사흘 후에 강을 건넌다.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어서 집을 꾸러라.”

최홍백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낫과 호미, 삽과 괭이는 물론, 밭을 갈 때 쓰는 보습까지 챙겼다. 호열자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두 아들이 부엌살림과 살림살이를 챙겼다.

사흘은 금세 지나갔다. 재형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마지막으로 찾았다. 최홍백은 아내의 무덤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는 두 아들을 재촉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부친을 부축했다.

“아버지, 어서 떠나야 해요.”

최홍백의 재촉에 재형의 할아버지가 지방이를 챙겨들었다. 아홉 살이 된 재형은 낯선 땅으로 간다는 호 기심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두만강을 건너다 관원에게 발각되면 목이 잘린다는 소문이 더 무서웠다. 최홍백은 가족들을 데리고 큰 길을 피해 으스스한 산길로 하루 종일 걸었다.

드디어 두만강 가에 다다랐다. 강물은 홍수 뒤끓이라 흉물스러웠다. 최홍백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후미진 곳에서 집을 내려놓고 가장 강물이 얇은 곳을 찾아 숨을 골랐다.

“우리 이제 강을 건너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저 강을 건너면 내 땅을 가질 수 있어. 우리 밭을 일구고, 우리 집을 짓고, 우리도 주인이 될 수 있다.”

땀에 젖은 최홍백의 얼굴에 톱 불거진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할아버지의 흐트러진 상투는 석양빛을 받아 불그스름하게 물들었다. “자, 어서 나를 따라 와라.”

재형은 비교적 가벼운 옷 보통이를 등에 지고 아버지의 뒤를 바짝 뒤 쫓았다. 커다란 장대로 강물의 깊이를 가늠하며 재형의 아버지 최홍백이 먼저 강물 속에서 저벽 저벽 밭길 을 내디뎠다.

리채운의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2회)



리채운
도서출판 작가교실 대표

신사임당이 당호를 지은 것은 누구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존재증명의 의미가 깊다. 신사임당의 이름은 ‘신인선 (申仁善)’으로 알려져 있다. 백과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후세에 붙여진 이름일 뿐, 신사임당 본인 고유의 이름은 아닌 듯 하다. 율곡은 신사임당의 일대기를 다룬 <어머니 행장>에서 ‘어머니의 휘(諱)는 모(某)’라고 적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것이 아니라 호적에 오른 이름이 없다는 뜻이다.

신사임당은 평생 4남 3녀를 낳아 길렀는데 가장 빼어난 재주를 지녔던 딸말 매창 외의 두 딸의 이름이나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매창도 그녀의 당호이지 이름은 아니다. 조선시대 여성 지식인들 중에 중국까지 이름을 떨쳤던 허난설헌(許蘭雪軒)은 자신의 3가지 통한(痛恨) 중 하나를 여자로 태어 난 것이라고 탄식할 정도였다.

신사임당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날리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서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신사임당은 그림, 시, 서예 등의 재주가 탁월했고, 십자수와 옷감 제작에도 능했다. 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소양이 높아서 경전과 고금의 사기, 문집에 두루 통하는 등 넓은 학식을 가졌다. 신사임당은 15살이 되자 스스로 당호(堂號)를 지었다.

신사임당은 왜 스스로 당호를 지었을까?

글 솜씨와 그림 솜씨가 날로 늘어가던 때라서 작품에 낙관을 찍을 호가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

스스로 지은 호 사임당’

재론적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나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빼어난 예술가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존재증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가 스스로 이름도 되고 호도 되는 것을 갖고 싶어진 것은 어려서 안견(安堅)의 그림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 이인사(李思淵)이 세종 때의 유명한 화가 안견의 화첩을 가져다 어린 신사임당에게 보여준 일이 있었다. 어린 소녀는 그 그림에 감동을 먹고 그 화풍을 따라 그림을 그렸다. 뿐만 아니라 총명한 그녀는 거기에 적혀 있는 현동자(玄洞子)라는 낙관(落款)을 보아버렸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높은 뜻이 담긴 이름을 하나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뇌리에 역사상 가장 현숙한 부인으로 이름 높은 중국 주나라를 세운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太任) 부인을 떠올랐다. ‘태임’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과 신념이 대단했던 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태임은 최초로 ‘태교(胎敎)’를 실시 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태임 부인을 본받는다는 의미에서 스승 ‘사(師)’자와 태임의 ‘임(任)’자, 집을 뜻하는 ‘당(當)’자를 붙여 ‘사임당(師任堂)’이라고 지었다.

사임당이 스스로 지은 당호를 보면 그녀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사(師)’는 본받는다는 뜻이요 ‘임(任)’은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을 뜻한 것이니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나아가서 ‘사(師)’는 덕으로써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스스로 모범이 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15세의 어린 소녀가 당호를 스스로 지었다는 것은 그녀의 당찬 성격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신사임당이 태임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은 데는 공자(孔子)의 영향

도 컸다. 공자는 주나라의 창업주 주문왕(周文王)을 깊이 숭상해서 “나는 젊었을 때, 문공(文公)을 꿈에서 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나이가 들고 늙어 쇠잔하여 꿈에서 그를 뵈을 수 없게 됐다. 참으로 슬프고 슬프도다. 이렇게 오랫동안 꿈에서 문공을 뵈을 수 없다니!”하면서 한탄할 정도였다.

사임당은 군자의 품모를 갖춘 태임을 본받아 살고자 했을 것이다. 신사임당이 당호를 지으면서 노렸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현모양처가 아니라 ‘군자의 품모’였다. 그녀가 흠모했던 태임은 문왕이라는 성군을 낳은 훌륭한 어머니이기 이전에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군자의 품모를 지녔던 인간상이었다.

옛날 성현들은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 도덕이 온전하고 재주가 갖추어진 사람을 일컬어 군자라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남자에게는 해당되나 부인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남들은 여자란 다만 도덕은 말할 수 있어도 재주는 말할 것이 못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자라도 덕이 이미 온전히 갖추어졌고, 재주도 통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면 어찌 여자라 하여 군자라 일컫지 못하겠는가. 사임당은 여자 중의 군자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정호, ‘사임당화첩발師任堂畫帖跋’, ‘장암집丈巖集’

막상 당호를 짓고도 신사임당은 그림에 그 낙관을 별로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에게 그것을 보이기가 아직은 쑥스럽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훗날 사임당의 그림을 모방해서 병풍도 만들고 족자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사임당이란 글자가 어떤 것인지 잘 잘 모르고 사(師)를 사(思)로도 쓰고 임(任)을 임(能)으로도 쓰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신사임당이 당호를 지은 것은 누구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증명의 의미가 깊다.

기고



가재산
현대문학작가협회 회장

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돌려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별난 분을 만났다. 그는 수년 전 청주에 강의를 가서 만난 ‘글쿠나 선생’이다. 내 강의에 앞서 사회자가 시낭송을 먼저 한다고 소개한 뒤 그분의 시낭송이 시작되었다. 올해 진갑의 나이가 지났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과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명함에 적혀있는 그의 닉네임이 ‘글쿠나 선생’이었다. ‘글쿠나’라는 말은 ‘그렇구나’의 줄임말인데 서로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긍정의 의미로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강의를 마치고 잠깐 인사만 한 짧은 만남이었기에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내 명함을 건넸다.

두 달쯤 지났을까. 그가 서울에 올라왔다고 전화가 왔다. 내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로 주꾸니 반끼리 하다 보니 두 사람이 거나하게 취했다. 두 번째의 만남인데 어느덧 형님 아우가 되었고 마음속 이야기까지 털어 놓게 되었다. 사람들

글쿠나 선생의 변신

은 자신의 치부는 가능한 숨기는 게 일반적이는데 그는 누에가 허물 벗듯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 놓았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그런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너털 웃음을 지으며 한때 지독하게 꼬였던 자신의 드라마 같은 인생사를 들려주었다. 그는 고시에 합격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가면서 30년간 국가공무원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청주에서 큰 음식점을 경영하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다.

내심으로는 고향화 시대가 오고 있으니 미리 퇴직해 인생 2모작에 도전하는 게 어떨까 싶어 정년 10년을 남겨놓고 소위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공직에 사표를 과감하게 집어 던졌다.

요즘 몰려드는 공시족에서 보듯이 공무원이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모두가 선망하는 직장을 박차고 나온 그의 무모함은 주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아무 경험도 없이 의욕만 앞선 그의 제2모작 인생은 시작부터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해보지 않은 일이라 그런지 하는 일마다 헝크러진 실타래처럼 꼬여갔다. 가족 간의 갈등, 특히 한식당이지만 밤 늦게까지 술도 팔아야 하는 이유로 부인과 불화가 생겨 심한 조울증까지 왔다. 결국 본의 아니게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쓰라림도 겪었다. 2모작은 고사하고 채 몇 년도 되지 않

는 사이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큰 상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니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도리어 가족은 물론 세상에 대한 극한 분노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결국 집안도 파탄났다. 술과 담배로 나날을 보내며 제대로 식사조차 못해 점차 폐인이 되어갔고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낭송을 접하게 되었고 김철재 시인의 시 ‘날마다 이런 날이게 하소서’를 혼자 수 천 번 읊조리면서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치유가 되면서 어느 순간 하늘에서 섬광이 내려온 듯 ‘그렇구나, 글쿠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내가 먼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

니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다. 완전 달라진 세상이 큰 선물로 다가왔다. 그 결과 진갑도 지나 은퇴할 나이지만 휴직 조각처럼 구겨진 2모작을 기억에서 지운 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의 르네상스라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긍정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이를 실행하고자 청주에서 후배들과 공인노무사 활동을 재개했고, 2014년 봄에는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제부터는 남을 돕는다는 봉사의 취지로 새로운 일 두 가지를 추가하여 인생 3모작을 시작했다. 그 첫째가 100세 시대를 맞아 4050 중년 세대들이 인생 후반기를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강연과 저술을 통해 코칭하는 일이고, 두 번째

는 우리들 마음을 토닥여 주는 종류인 시낭송을 통해 고단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다. 그의 시낭송은 청주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구로 뛰는 일도 생겼다.

지난달에 쓴 자작시로 아직은 습작 수준이라며 부끄러운 얼굴을 하면서 시가 적힌 종이 한 장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보였다. 그 시가 던지는 울림이 있어 여기에 옮겨본다.

분노와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한 삶의 연속에

오늘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정하려 애를 씁니다.

야, 그렇구나 그랬구나 글쿠나 글쿠나! 하면서

주문 외듯 글쿠나 하는 독백에 내 마음이 어느새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에 평화를 얻으니 모두가 사랑이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 하루하루가 금싸라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팍팍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해관계는 실타래처럼 엉켜어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삶속에서 우리들은 고단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럴 때 일수록 ‘아하, 그렇지!’라는 말 한마디의 효과는 만병통치약이요 자신을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신나게 살아가며 날마다 주는 긍정파이어의 힘은 그날따라 더욱 크게 느껴졌다.

CTN문학관

봄이 가네

박영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지랑이 찾아
봄빛은 몸 서려
살금살금 풀잎 밟고 오네

뭇가 그리 두려운지
결결질도 벗지 않은 채
먼 길 에둘러오네

온돌 받겨 줄 이 없는 이 봄
간들 아랑곳없는 이 세월

꽃은 홀로 피었다 홀로 지는데
봄은 얼굴가리고
오는 등 마는 등 왔다가
눈도장도 찍지 않고
입 코 틀어막은 채
재미없는 표정으로 시뭇이
미적미적 오면 길 되짚어 가네

김영랑문화대상, 청조문학대상, 육로문학상, 서산문화대상, 한국문인협회 감사, 개간문예작가회 이사, 한국공무원문학협회 고문 외, 시집 <들소의 노래> <매봉이꽃> <들꽃 향기> 외, 수필집 <마을나들이 생각나들이> 외, 편저<사산시베아문운동사> 외, 이메일byh685@hanmail.net